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전략 연구 Safe strategy research in 10 IT agenda

류 창형*, 이근 우**
주)코아글림*,
목원대학교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Ryu chang-hyoung*, Lee keun-woo**
coregleam, co., Ltd.*,
Podit RIC, Mokw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ETRI 전망 비전 2020에서 제시한 4S전략(Smart, Safe, Strong, Sustainable)을 바탕으로 Beyond Smart 시대의 Safe 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Smart한 국가기반과 Strong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Safe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일과 Sustainable한 국가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상호 독립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전략(strategy)의 문제이다.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전략은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안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 장수국가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교통 선진국가 등 3개 아젠다로 도출하였다.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영역을 탄실하게 구축하는 경우, 미래의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국 대열을 선도하는 국가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최근 10대 히트상품의 1위가 스마트 폰이었을 정도로 스마트(Smart)가 우리생활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는 CNN방송에서 발표한 2010년도에 실패한 10가지 기술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선보인 스마트 폰 킨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넥서스원, 애플의 아이폰 4의 안테나 등 스마트와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스마트 TV를 필두로 스마트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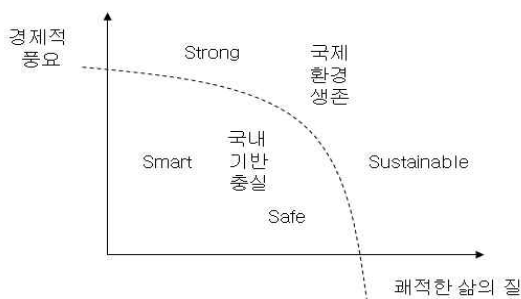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ETRI에서 전망한 비전 2020에서 제시한 바 있는 4S전략(Smart, Safe, Strong, Sustainable)을 바탕으로 Beyond Smart 시대의 Safe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4S 이노베이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아우르는 선진국의 미래전략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강력한 미래국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은 매우 'Strong'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national competitive power'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매우 'Safe'해야 한다. 'Safe'는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national happy and helpness'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전략

그림 2.에서와 같이 Safe분야에는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안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 장수국가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교통 선진국가 등 3개 아젠다로 구성되었으며, Strong분야에는 학습자 중심의 지능형 교육시스템 선도, 삶의 질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로봇 공동체, 세계 최고의 u-시티건설 등 3개 아젠다를 도출했다. Sustainable분야에는 에너지 패권시대를 대비한 최적순환 사회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환경선진국가 2개의 아젠다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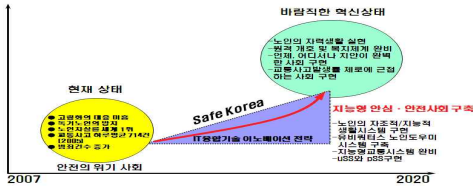
▶▶ 그림 1.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을 축으로 한 '4S'

*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지정 목원대학교 방재정보통신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그림 2. 4S 10대 미래 전략

우리나라는 40대 남성사망률, 여성암 발생률, 항생제 사용량/내성률, 산업재해 사고율,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사회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노인의 건강한 삶 등 노년기의 자력생활 실현과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치안·방재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실시간 사건/사고 발생의 상황인식 및 대처능력 확보, 건강정보의 개인활용 기반, 의료기관의 정보기반 정비 등 21세기형 의료구조개혁과 제2의 생존공간으로서의 IT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



▶▶ 그림 3. Safe 전략

(1)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안전국가

우리나라 안전은 1976년 이후 범죄건수는 약 3.7배 증가(2005년기준)하였으나, 검거율은 20년만에 최저로 불안한 상태이다. 물리적인 모든 시스템이 안전하게 갖춰져 있고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위해 2012년까지 공공안전 서비스 시대가 도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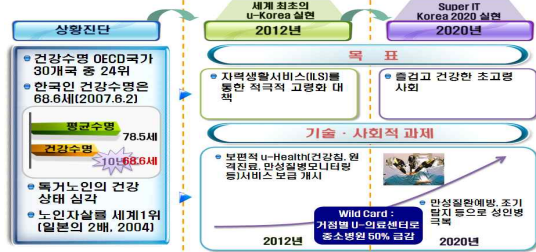


▶▶ 그림 4. 안심.안전국가 전략

(2)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건강 장수 국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세 이나 건강수명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2년까지 타인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자력생활서비스(ILS)를 지원하는 유비쿼

터스 홈/타운 보급과 2020년까지 주변의 모든 생활공간의 지능화와 간호 및 생활지원 로봇의 보급으로 즐겁고 건강한 초고령 사회가 실현된다.



▶▶ 그림 5. 고령화 사회 대비 전략

(3)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교통선진국가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2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이르며,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714건 발생하고 22.3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를 교통의 지능화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통사고 제로에 근접하는 안전한 국가를 실현한다. 2012년까지 교통사고 예방, 발생, 사후처리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020년까지 충돌회피 및 자동운전으로 교통시스템을 최적화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에 도전한다.



▶▶ 그림 6. 교통선진국가 전략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으로써 Safe, Sustainable, Smart, Strong 의 4S 중 Safe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0대 IT 아젠다에서의 Safe 영역을 탄실하게 구축하는 경우, 미래의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안전한 선진국 대열을 선도하는 국가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하원규, 황성현, (2008), “국가비전 IT 2020”, ETRI
 [2] 하원규, 연승준, 최호진, (2006), “EU의 IT기반 미래 기술 연구동향”, ETRI
 [3] 하원규, 연승준, 최호진, (2006), “미국의 IT기반 미래기술 연구동향”, ETRI
 [4] ETRI, (2008), “ETRI 비전 2020”
 [5] KISDI, (2006), “IT 기반 미래국가발전전략 연구 총괄보고서”